

## 영국 공연계 성폭력 관련 특별 조사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lovestage.com)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자체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  
정말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는 것.”

로알코트 예술감독 비키 페더스톤(Vicky Featherstone)

2018년 상반기 영국 공연계는 현장과 학계 모두 ‘미투’ 운동의 결과로써 연속된 조사와 발표를 내고 있다. 그 연결 선상에서 이루어진 더 스테이지(The Stag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연계 종사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40%를 넘었으며 세 명 중 한 명은 성희롱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별 조사(Special Report, Harassment in Theatre)”는 배우들과 무대 뒤 창작진, 극장 직원과 관리자를 모두 포함한 1,0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적어도 영국내 공연 제작 현장에서의 성희롱(43%)이나 괴롭힘(31%)은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해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중 8% 정도는 강제적인 폭행 행위로 이어졌고 강간의 사례도 조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영국 공연산업 내에서 진행된 ‘미투’의 시작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발생한 성희롱과 예술 권력의 피해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공연계에서 일어났던 과거 사례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출발은 아래와 같다.

• 2017.10 전 로알코트(Royal Court) 극장의 예술감독이었으며 런던을 근거로 한 공연 투어전문회사 아웃 오브 조인트(Out of Joint)의 공동 창업자 맥스(Max Stafford-Clark) 연출가가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성희롱 사건이 처음 언론에 밝혀짐.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적절한 언행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성명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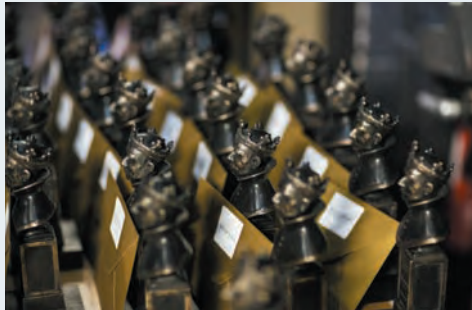
• 2017.10 30년 전 배우(Anthony Rapp 당시 14세)를 아파트에서 유혹했다는 의혹이 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케빈 스페이스(Kevin Spacey)의 해명과 자신은 “게이의 삶을 살고있다”고 커밍아웃. 연이어 케빈 스페이스의 올드빅(Old Vic)극장 예술감독시절의 세번째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2018년 1월 경찰 조사 착수. 각종 시상식에서 케빈 스페이스 배제 및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 폐업.

• 2017.10 로알코트 극장에서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예술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위한 행동 지침(본지 3월호 기고) 발표. 배우협회 지지 성명 및 경찰과의 합동 조사 시작.

공연계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극장 산업 전반에 팽배한 풍토적인 현상이며, 구성원들은 이러한 병폐를 겪어오면서도 정상적으로 보고되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는 무대 기술진들은 특히 많은 괴롭힘을 견뎌야 했고 조사 대상자 중 50%의 관련 종사자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35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성희롱이, 그 위 나이대에선 괴롭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사로 참여한 프리랜서 단원들은 대체적으로 적은 경험치를 나타내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가해자들의 체계적인 움직임(외부인사들에게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굳이 외부에 알려야 할 목적의식을 찾지 못해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파악되어 이 지점에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의 67%가 신

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했던 사람들의 약 70%가 아무런 변화를 목격하지 못했다. 심지어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79%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올리비에 상 @David Levene

한편, 한 해 런던 공연계의 최대 행사인 올리비에 시상식(4월 8일)은 최근 '미투' 운동과 더불어 가장 안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연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시상식을 주최하는 런던 극장협회(SOLT)의 대표, 줄리안 버드(Julian Bird)에 따르면 각계 인사들이 모여 성희롱 퇴치를 위한 배지를 나누어 달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공연계도 예외일 수 없다며 '레드카펫' 행사에서부터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라 한다.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이 판치는 불명예스러운 영국 공연계를 위해 연예노조(BECTU)와 배우조합(Equity)은 지금부터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과 제작사에게 작품 계약시 상호 존중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특별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업계 전반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노조, 그리고 제작사 대표들에게 지켜야 할 기존 항목들을 강조하고 추가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명시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공연계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safespace@themu.org) 계정을 만들어 업계 전반에서 나누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런던에서 열린 여성노조 학회(TUC Women's Conference)에서 “공연계가 이런 나쁜 관행(toxic culture-직역하면 독성 문화라는 강한 어조)이 살아있도록 허락해왔다”고 선언하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창작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따라서 “예술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허락된 것”이라 확인했다.

끝으로 공연계 성폭력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지적된 영국의 드라마 스쿨 연합(왕립 연극학교를 포함한 20개 연극대학) 또한 특별 긴급 미팅을 가지면서 로얄코트의 행동지침을 지지하는 성명과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정책들과 함께 세 가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공연계에 은밀히 발생하는 성폭력과 권력 남용의 병폐는 다른 곳이 아닌 (입학때부터 졸업후 평생 따라다니는) 오디션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교육기관(대학의 연극학과)에서부터 나타나 현장에 안착한다.”**

배우조합 부대표 무린벤티(Maureen Beattie)

하나. 우리의 새로운 정책들은 충분히 강력한가?

둘. 이런 새 정책들이 학교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셋. 그렇다면 공연계 성폭력과 권력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가?

앞으로 무엇이 되든 우리 공연계에 적용될 예방 정책 또한 위 세 가지를 되물어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